

플랜티넷, 유해정보차단서비스로 동반자살 막는다

경기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동반자살 사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강원도에서 모두 11명이 연속적으로 동반자살한 배경에 인터넷자살사이트를 통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이 중 미성년자로 보이는 10대 여성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또한 절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전문업체인 플랜티넷(대표 김태주, www.plantynet.com)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해정보차단서비스에는 성인사이트나 음란물 접근만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자살모의사이트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까지 차단이 가능하다면서 청소년자녀를 둔 가정의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업체에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신청하면 자살사이트 접속도 막아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국내 주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모두 부가서비스로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C나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학부모들도 초고속인터넷업체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신청과 차단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가정은 약 80만 가정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린아이넷 캠페인 통해 소프트웨어 무료보급 시작 정부에서도 유해사이트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그린아이넷' 캠페인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과 더불어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전설정이 가능한 'i안심'(www.iansim.co.kr)과 같은 무료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차단서비스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모바일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2009', 롯데디자인즈와 제휴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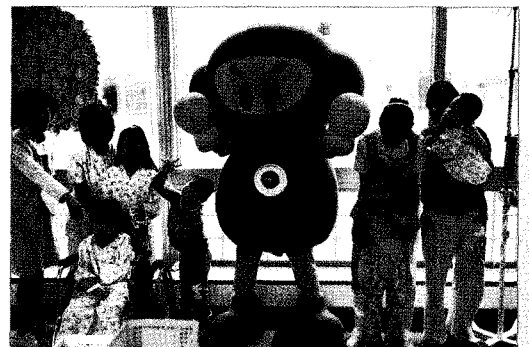


스타일리쉬 리얼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2009'가 프로야구구단 롯데디자인즈와 제휴하고 올 시즌 내내 컴투스 게임 유저들에게 사직 구장 컴투스존 지정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컴투스(대표 박지영, www.com2us.com)는 롯데디자인즈와 공동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올 시즌 동안 컴투스 유저들을 위한 지정석인 '컴투스존' 운영과 매월 팬사인회 진행, 롯데선수 카드 증정 등 다양한 공동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모두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야구게임인 컴투스프로야구2009는 현장감 넘치는 화려한 게임 화면과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과 감독, 200여 선수들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임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이닝 점프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게임만 직접 플레이하고, 선수와 감독 카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조합과 강화로 자신의 구단을 키워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컴투스에서는 이번 제휴를 통해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게임팬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야구 시즌을 실감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사직 구장에 컴투스존 좌석을 설치하고, 컴투스프로야구2009 게이머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매월

컴투스프로야구2009 게이머들이 뽑은 롯데디자인즈 인기 선수의 사인회를 진행한다.

넥슨, 소아병동 환아들과 함께한 따뜻한 어린이날 행사

넥슨(대표 서민·강신철, www.nexon.com)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웅) 소아병동을 찾아 환아 위로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넥슨 사회봉사단 '핸즈(hands)' 소속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소아병동 세 곳의 병실을 돌며 환아 1백 여 명에게 넥슨 게임캐릭터 문구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9 건강한 어린이 세상 만들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자사의 인기 캐릭터 '다오'와 '배찌' 탈 인형을 직접 쓰고 어린이들과 함께 즉석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들의 얼굴에 자사의 인기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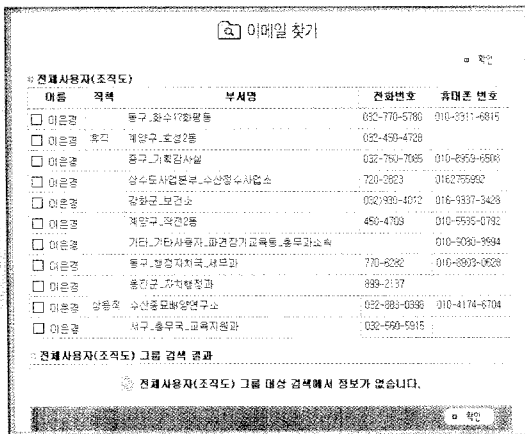


큐브리드, 채널 정책 새롭게 재정비

큐브리드(대표이사 정병주, www.cubrid.com)는 큐브리드의 적용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큐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채널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채널 정책은 기존의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채널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오픈 소스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징과 취약점 등을 보완한 새로운 채널 정책으로 재정비했다. 채널은 자체 협력사나 채널을 보유한 CUBRID Advanced Partner(CAP), 자체 영업과 기술을 보유한 CUBRID Business Partner(CBP), 영업 파트너인 CUBRID Sales Partner(CSP), 기술지원 파트너인 CUBRID Technical Partner (CTP)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채널사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기술 지원 및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채널사들의 기술지원 퀄리티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널사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대 70%까지 대폭적인 마진을 보장함으로써, 큐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적용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라비전, 인천광역시 행정 내부 메일시스템 구축



웹 메일 솔루션 전문기업 (주)나라비전(대표 한이식 www.nara.co.kr)은 인천광역시청 행정포털과 연동하는 내부 메일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과 시군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이번 행정내부 메일은 행정포털시스템의 조직도와 연동되어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간편한 검색기능만으로 수신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청 행정포털의 암호화 연계로 GPKI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행정보안이 강화되었고, 실시간 메일수신 알림 기능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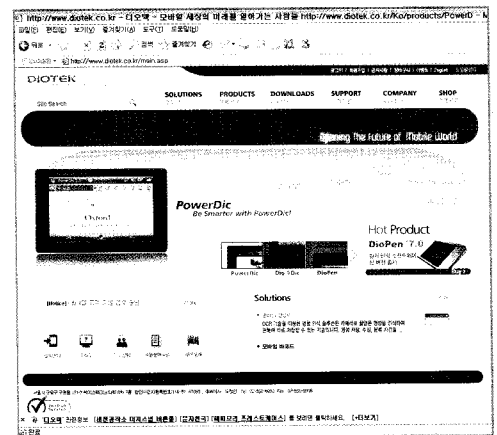
이번 행정내부 메일시스템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과 일정관리 기능 등 행정업무의 편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기능이 함께 구현되어 인천광역시 내부 공무원간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구축된 인천광역시 내부 행정메일은 인천광역시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내부메일 전용솔루션 패키지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주)나라비전 개발본부 윤은정 과장은 밝혔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선두 기업 디오텍 창립 10주년 맞아

국내 대표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디오텍(www.diotek.co.kr, 대표이사 도정인)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디오텍은 1999년 필기인식 소프트웨어 디오펜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스마트폰과 PDA 및 터치스크린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며 굳건히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제 한파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디오텍은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써의 위상을 지켜나갔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열풍을 활용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써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오텍은 지난 10년 간 모바일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꾸준히 매진하여, 필기인식 소프트웨어 '디오펜', 전자사전 소프트웨어 '디오펝'과 OCR 명함 인식 소프트웨어 '모비리더' 등 일반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불모지라도 갈던 국내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한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기업이다.



Venture Focus

오스코텍, 미국 FDA와 네덜란드 임상심의회관(CCMO)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 승인 받아

뼈 전문 신약개발 기업 오스코텍(대표 김정근, www.oscotec.com)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오스코텍은 6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네덜란드 국가 임상심의회관인 CCMO(Centrale Commissie Mensgebonden Onderzoek)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OCT-1547'의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임상 1상 시험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상 1상 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실제 사람에게 투여해 부작용이 없는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건강한 지원자 또는 약물군에 따른 적응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부작용 등의 안전성 및 약물의 체내 흡수 동태 등 약동학 확인에 중점을 둔다. 오스코텍은 다국적 임상시험기관인 캔들사(Kendle International Inc.)를 통해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한다. 캔들의 임상 1상 시험기관이 있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건강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OCT-1547을 경구 투여한 후 안전성, 내약성(tolerability), 약동학 및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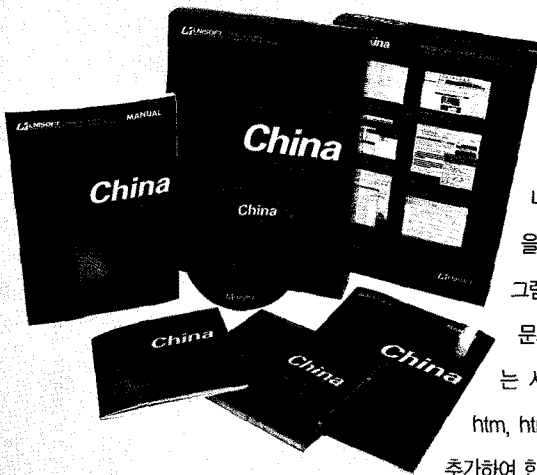
오스코텍은 이번에 임상 1상 시험에 들어가는 골다공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OCT-1547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분화와 활성 자체를 억제해 뼈가 소실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엔텔스, SaaS 사업 진출

엔텔스(대표 심재희, www.ntels.com)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추진하는 2009년도 SW공통서비스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 하었다고 밝혔다. 금번 SW공통서비스 구축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서비스를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소정 기간 동안의 시범 서비스 후 SaaS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사업의 상용화를 통하여 웹 기반 BPM, 오픈 API, 가상화 기술 등이 적용된 SaaS 공통 및 유통 인프라가 운용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IT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SaaS 사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ERP, OCS, ITSM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IT 서비스가 전담 품질개선 팀의 활동 하에 이 인프라 위에서 테스트 및 운영 되므로 그간 B2B ASP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 되었던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따르는 유연성과 보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엔텔스의 컨설팅 사업본부장은 "금번에 진행되는 SaaS 인프라 서비스에 기존 통신 솔루션 사업에서 축적한 과금/정산/지불, CRM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프로세스 기술 등을 적용하여 SaaS 기반 애플스토어로의 고도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애플스토어 사업자가 SaaS 인프라 운영, 마케팅 서비스와 같은 온디맨드 SW 마케팅레이스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게 되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은 SW 개발 활동에 주력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사용한 만큼 만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SW 산업 전반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기대효과를 언급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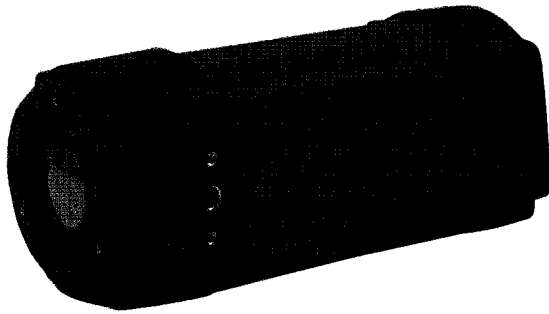
엘엔아이소프트, 최다 어휘 우수엔진 탑재한 중한 양방향 번역S/W '젠투웨이차이나' 출시



국내 자동번역시장의 마켓리더 엘엔아이소프트(대표 임종남, www.lnisoft.com)는 11일 중한 양방향 번역 SW '젠투웨이 차이나(Zen2way China)'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엘엔아이소프트에 따르면 '젠투웨이 차이나'는 양방향으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자동번역이 가능한 SW로서 3년 만에 국내 중한 양방향 번역SW 출시 소식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젠투웨이 차이나'는 국내 시중 중한 번역SW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95만개의 풍부한 어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한, 한중 번역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시중에 판매되는 단방향 중한 번역SW와 동일한 가격(소비자가 33만원)으로 양방향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서번역과 인터넷번역, 문장번역, 사전편집 등 크게 4가지 번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젠투웨이 차이나'는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파일열기를 통해 다양한 형식(txt, rtf, tm, htm, html)의 문서파일을 번역해 준다. 또한 MS-Office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MS Office Add-in 기능을 추가하여 한-중, 중-한 양방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워드,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MDS테크놀로지,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시장진출 ... 세계1위 '플리어 시스템즈' 와 전략적 제휴



전 세계가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비상 방역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공황을 통해 유입되는 집단 감염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놀로지(대표 이상현, www.mdstec.com)는 세계 1위의 열화상 카메라 전문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FLIR Systems, NASDAQ : 'FLIR')사와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및 영업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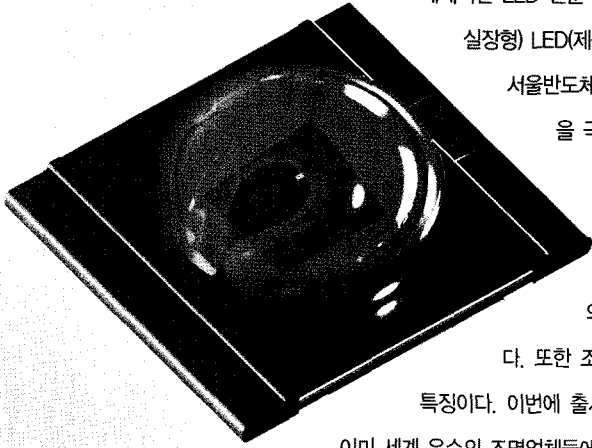
열화상 카메라란 사람 혹은 사물에서 방사되는 열 에너지를 전자파의 일종인 적외선 파장의 형태로 검출하여 각각 다른 색상으로 영상화 해주는 특수 카메라로서, 단순한 온도측정에서 전기, 전력설비, 원자력, 에너지, 산불 화재감시, 문화재 보존용 온도 감시, 식품검사,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을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플리어 시스템즈(FLIR Systems)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전문업체로서 195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성능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 분야에만 주력해 왔으며 정부 기관, 산업자동화, 국방, 항공, 보안, 의료, 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에 열화상 카메라 솔루션을 공급해 왔다.

MDS테크놀로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플리어 시스템즈의 신제품인 A시리즈 (A320, A325)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용 시스템을 개발, 공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축적한 임베디드 분야의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의 고객DB를 기반으로 열화상 카메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후방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enture Focus

서울반도체, 조명용 120lm/W 新 특허제품 대량판매 시작



세계적인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 www.acriche.co.kr)는 120lm/W급 조명용 고효율 SMD타입(표면실장형) LED(제품명 : LCW100Z1)제품을 출시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발표한 LCW100Z1은 기존 CHIP LED의 기판과 달리 메탈기판에 Dome 렌즈를 적용, 광효율을 극대화시켜 120lm/W 이상을 구현하고 열 전달 효율을 높여 Top View 방식의 LED 대비 광효율을 20%이상 향상 시켰다. 특히 이번 제품은 열 전달 효율성 면에서 전류를 2배 이상 흘려 동일 칩의 휘도를 2배 이상 올리는 등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우위를 갖는 특허 제품이다.

LCW100Z1은 가로 3.5mm X 세로 2.8mm X 높이 1.6mm의 초박형구조의 LED로써, 20mA의 저전류에서 최대 7.8lm(@0.06W) 40mA 에서 14.3lm의 고효율 제품으로 지향각은 120도이다. 또한 조명에서 요구하는 광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열설계가 적용되어 신뢰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LCW100Z1은 CCT(색온도)에 따라 Pure White, Warm White, Natural White 가 있으며, 이미 세계 유수의 조명업체들에 시제품이 제공되어 호평을 받았다.

기존 Top View 방식의 LED를 바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튜브형 형광등과 면광원용 조명 등에서 적용 확대가 예상된다. 가격면제로 파워LED 시장의 확대가 늦어지는 시점에서, 이 제품을 통해 조명 업체들이 다양한 응용조명제품을 만들 수 있어 향후 LED조명시장의 확대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Sign Display, 휴대용 조명, 냉장고 고내등, 장식조명 등 다양한 조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디지털오아시스, '웹접근성' 컨설팅서비스 진행

디지털에이전시업체 디지털오아시스(대표 이보람, www.digitaloasis.co.kr)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웹접근성' 무료 테스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최근, 한국HP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 금융 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 기관조차도 '웹접근성' 준수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50%에도 못 미쳤고,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탈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했으며, 키보드로만의 운용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디지털오아시스는 이번에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웹접근성' 무료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다비디스플레이, 16:9 27형 모니터/LCDTV 2종 6월초 출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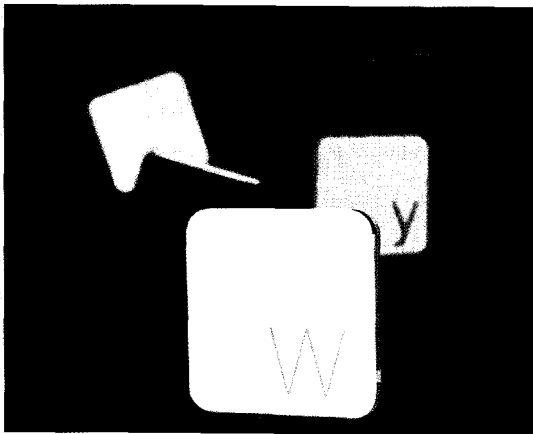
LCD 전문 제조 업체인 다비디스플레이(대표 신호철, www.davidp.co.kr)에서 16:9 비율의 27형 LCD Monitor와 LCD TV겸용 Monitor 2종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LG DISPLAY 정품 패널을 사용하여 FULL HD 해상도 1,920x1,080을 지원하고 명암비 1,000:1 에 2MS(GtoG)의 빠른 응답속도를 자랑하여 FPS게임이나 동영상 재생 시 보다 더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 27형 LCD TV 겸용 모니터의 경우 FULL HDTV수신이 가능하며, 최신 LG 6세대 수신 칩셋이 장착되어, 선명한 HDTV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리모콘 기본 구성품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다. 두 화면을 볼수 있는 PIP기능 역시 기본이며, Digital By Digital이 가능한 최신형 AD보드장착으로, HDMI와 HDTV 영상을 동시에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입력단자로는 HDMI, DVI, D-SUB, 컴포넌트, Audio In/Out, ANT 단자입력을 지원한다. 출시전부터 소비자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7형 제품은 6월초 출시예정이다.

_ 인프라웨어-인텔-SK텔레콤, MID 시장 공략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인프라웨어, 인텔®, SK텔레콤 3사는 차세대 웹서비스를 통한 MID(Mobile Internet Device)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MID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 오픈 마켓 플레이스 개발과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텔은 벤처 투자 조직인 인텔 캐피탈을 통해 MID시장 확산을 위한 협력을 위해 인프라웨어에 미화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인텔은 아톰™ 프로세서 기반의 차세대 MID 플랫폼인 무어스타운(Moorestown)을 개발하고, 인프라웨어는 모블린(Moblin) 운영체제 플랫폼과 관련된 미들웨어, UI,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며, 그리고 SK텔레콤은 MID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웹서비스 시장을 강화하게 된다.

_ 메모렛월드, 6월 2~6일 대만 국제 컴퓨터 박람회 참가



메모렛월드(www.memorette.co.kr)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 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차이나 소싱 페어 선물용품전(Global Sourcing Gifts & Premiums)에 참가하여 약 15만 불의 이니셜 오더를 따오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가운데 6월 2일부터 6일 까지 대만에서 개최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박람회 (COMPUTEX TAIPEI)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차이나 소싱페어 선물용품전(Global Sourcing Gifts & Premiums)에는 1,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메모렛월드는 MINI, SPIN, Sponge Bob 등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온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메모렛월드는 이러한 다양한 해외 전시회 참여로 한국 IT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내 시장 선도자로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렛월드는 그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마켓 셰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 닉스테크, 보안USB CC인증 획득

통합PC보안 전문기업 닉스테크(대표 박동훈 www.nicstech.com)는 자사 보안USB 솔루션 제품인 'SAFEUSB+'가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 EAL2(Evaluation Assurance Level 2)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안USB 중에서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닉스테크의 'SAFEUSB+' (세이프유에스비플러스)를 포함해 외 산업체 1곳 등 총 2개에 불과해 이번 CC인증 획득은 닉스테크의 기술력을 대외로부터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번에 인증 받은 'SAFEUSB+' (세이프유에스비플러스)는 국가정보원의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의 필수 보안 기능을 충족할 뿐 아니라 최근 일부 보안 USB메모리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해소한 제품이다. 또한 전용 USB 메모리 외에 일반 USB 메모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일반 USB 메모리에 'SAFEUSB+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탑재시키면 보안 USB 메모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USB 메모리를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닉스테크는 이번 CC인증획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보안업체가 보안USB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CC인증은 필수요건이다.

닉스테크 박동훈 대표는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에서 CC로 제도가 바뀌면서 보안USB 업체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CC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